

春香傳의 表現問題

全 鑿 大*

一. 도 언

근래에 판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각 대학에서는 판소리론 강좌가 개설되고, 또한 각 대학의 축제에서도 판소리 감상회가 하루를 차지하여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의 동기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전통 문화에 대한 민중의 자각이 그 하나요, 학계에서 판소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 둘째라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판소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돕고자 한다.

판소리에 대한 연구는 음악적 연구와 문학적인 연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음악적인 연구로는 국악도로서의 업적과, 판소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판소리 전반에 대한 지식을 주는 서적¹⁾을 볼 수 있고, 문학적인 접근으로서 사설 자체에 대한 여러 측면의 연구이다.

특히 춘향전에 대한 연구는 국문학의 연구가 있어 온 이래 많은 논점의 대상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申在孝의 남창 春香歌를 중심으로 漢詩의 인용 양상을 살피어 판소리 사설에서 漢詩는 어떠한 구실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자 한다.

二. 漢詩 인용 양상

판소리 사설에서 漢詩를 인용한 것은 漢詩 자체를 그대로 인용한 직접적

* 博士課程(國文學專攻)

1) 姜漢永: 「판소리」(교양국사총서 28.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인 것과 시구를 변용한 간접적인 것 들을 발견할 수 있다.

1. 직접 인용

춘향의 재기가 뛰어남을 묘사하는데

너공의 침선이며 심지의 풍류속을 모를 거시 업셔스니 더비 너어 속신하고 집의
있서 품부하여 외인 상통 아니 하니 양지심규인미식에 얼골 알 이 혼춘구나

라 하여 규중 아녀자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양지심규인미식’은 白樂天의 長恨歌 중에서 ‘養在深閨人未識’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長恨歌에서도 楊家의 女兒가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은 재원임을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서 ‘양지심규인미식에’를 생략하여 ‘외인 상통 아니 하니 얼골 알 이 혼춘구나’로 하여도 춘향의 묘사에 모자람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漢詩句를 넣어 묘사하고 있다. 또한 ‘외인 상통 아니 하니’는 ‘養在深閨’를, ‘얼골 알 이 혼춘구나’는 ‘人未識’을 풀어 놓은 것이다.

이와 같이 漢詩를 인용한 것은 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중 또는 독자로 하여금 정감적인 세계에 몰입하게 하고 아울러 관소리가 서민층이라기보다는 지식층의 향유물이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하겠다. 특히 사실 처음부터 시구로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절디가인 심길 적의 강손정기 타서 난다. 저라손 약야계에 서시ᄃ 종출하고 군
순만학부형문에 왕쇼군이 성장하고 쌍각손 슈려하야 녹주가 성겨시며 금강활이아
미수에 설도 환출 하여더니

‘군순만학부형문’과 ‘금강활이아미수’는 羣山萬壑赴荆門, 錦江滑膩峨眉秀로 시구임을 알 수 있다.

이도령이 廣寒樓에 올라 경치를 보는 대목에서

광한루전 당도하야 하마체에 선듯 내려 누상에 올라가니 고덕스망동 가괴울총총
이라 하여 王勃의 臨高臺에서 ‘高臺四望同 佳氣鬱葱葱’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런데 完板本에서는

일언 승지의 풍월이 업실소나 도련입이 글 두 귀를 지어스되

高明烏鵲船 廣寒玉階樓

借問天上維織女 至興今日我牽牛

로 이도령의 自作詩가 대신 보이고 있다. 이는 후대에 소설로 정착하면서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도령과 춘향의 이별대목에서도 직접 인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춘풍도리화기야의 처량호 저 두견이 공산야월 잇다 두고 격막한 스창전의 불여귀
슬픈 소위 날서도북 부루지저 구곡간장 다 노기며 녹음방초 여름 되며 옥창 임도
불거가니 상스하는 우리 남군 뚝속의나 만나불가

여기에서 ‘춘풍도리화기야’는 白樂天의 長恨歌에서 ‘春風桃李花開夜’를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변사도가 춘향을 호출하여 수청을 들게 하려는 장면에서는 漢詩가 아주 극적으로 인용되었다.

간신이 셔드러셔 남원 부스하엿더니 오히려 늦 덤병여 너웃튼 저 일시를 옷봉지
를 셔여시나 녹엽성음 자만지가 아직 아니 되야시니 호주 탄화하던 일을 두목지에
비하면은 너 오히려 다힘이다 구관 칩방 도령님이 네 머리틀 언터다니 그 도령님
가신 후의 청춘 공방호 슈 잇나

杜牧之의 歎花詩를 인용하여 춘향이 綠葉成陰子滿枝까지는 되지 않았으니 杜牧之보다는 변사도 자신이 女色에 복이 있음을 과시하고 있다. 杜牧이 湖州에서 노닐 때 결혼을 약속했던 소녀가 10년 후에 가보니 남의 아내가 되었음 한탄하여 지은 시가 歎花詩이다. 杜牧은 이미 남의 아내가 되었고 자식을 낳았기에 뜻을 이루지 못했으나, 春香은 아직 자식도 없고 또한 결혼을 한 것은 아니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변사도의 속셈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 杜牧의 시와 故事가 삼입되지 않았다면 사실로서 무미건조할 것이다. 곧 시를 인용하는 묘를 보인 극치라 할 만하다.

2. 간접 인용

시구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字句를 변형하거나, 시구를 풀이하여 인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춘향의 출생 장면에 보이는

저라손 약야계에 서시 7 종출하고 군산 만학부형문에 왕소군이 심장하고 삼각손 슈려하야 녹주가 심겨시며 금강활이아미수에 설도 환출하여더니

에서 杜甫의 詠懷古蹟五首의 ‘羣山萬壑赴荆門 生長明妃尚有村’을 한 句는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또 한 句는 풀이하여 王昭君의 출생을 설명하였다. 또한 薛濤의 출생에 대하여도 全唐詩話의 ‘錦江滑膩蛾眉秀 幼出文君與薛濤’를 같은 수법으로 인용하였다.

앞의 직접 인용보다는 다양한 변모를 보여 주는 예라 하겠다. 즉 詩의 原義를 살려 묘사의 기교를 보인 것이라 생각된다.

이별하는 장면에서도 님이 없는 고적한 분위기를 시로써 표현하고 있다.

천산조비 쏜어지고 만경인적 업실적의 각침찬 금금란의 놀과 함기 자자나가

柳宗元の 江雪에서 ‘千山鳥飛絕 萬徑人蹤滅’을 인용하였는데 ‘絕’과 ‘滅’을 각각 ‘쏘어지고’와 ‘업실 적의’로 풀이하였다. 江雪을 인용함으로써 님을 여윈 쓸쓸하고 적막한 환경을 그렸다는 점은 표현 기교에 있어서도 손색이 없다. 곧 詩가 가지고 있는 意境을 소설적인 분위기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기생 접고하는 장면에서 詩意를 살린 것을 볼 수 있다.

화중부귀 목단이 에 등덕향엿쇼 구름갓튼 머리로 고이 뵈고 나간다 천우교목 임섬이 에 등덕향엿쇼 단순호치 고운 양주 잠간 뵈고 나간다 만리 무운 추월이 에 에 덕향엿쇼 세류요 잠깐 구퍼다 경이 뵈읍는다 동자설중 미화 에 등덕향엿쇼 련화보 고이 질어 맛시있게 뵈읍는다 괴불탁속 비봉이 에 등덕향엿쇼 금상자작 거머 안고 안져싸가 일어난다 벽파유영 은린이 에 등덕향엿쇼 옥수 들어 턱 고이고 숙여다가 일어난다 제 너머서 모라 불러 곤산의 명옥이 나오 금곡의 목쥬 나오 봉녀의 운선이 나오 옥서의 부옹이 나오 무릉의 홍도 나오 위성의 류식이 나오 아미손의 반월이 나오 율리의 국향이 나오

기생의 이름과 그 사설을 정리하면

牧丹：花中富貴

鶯鶯：遷于喬木

秋月：萬里無雲

梅花：東閣雪中

飛鳳：飢不啄粟
 銀鱗：碧波游泳
 夏雲：多奇峰上
 明玉：崑山
 綠珠：金谷
 雲仙：蓬萊
 芙蓉：玉嶼
 紅桃：武陵
 柳色：渭城
 半月：峨眉山
 菊香：栗里

와 같이 각각 그 특성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중에서 飛鳳, 夏雲, 柳色, 半月이는 李白의 古風土에서 ‘鳳飢不啄粟’, 顧愷之의 四時吟에서 ‘夏雲多奇峰’, 王維의 送元二使安西에서 ‘渭城朝雨浥輕塵 客舍青青柳色新’, 李白的 峨眉山月歌에서 ‘峨眉山月半輪秋’에서 각각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생집 고를 받는 사도에게 詩意를 생각하게 하여 각각 특징있는 기생의 모습을 그리게 하고 있다. 문학작품은 당대의 시대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므로 작품 상에서 詩를 이와 같이 사용하였다는 것은 적어도 지식층에서만은 일상 언어생활에서 이와 같이 漢詩句를 많이 사용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춘향이 사도에게 하는 말에서 詩를 풀이하여 인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춘향이 옛조오더 소녀의 먹은 마음 스즈님과 다르오니 도령님이 무신하야 설렁 다시 안 차지면 반첩여의 본을 바다 옥창형영 지나갈 제 춘야나유 지키싸가 이몸이 죽삼거든

‘반첩여의 본을 바다 옥창형영 지나갈제 춘야나유 지키싸가’는 王維의 班婕妤三首 중에서 ‘玉容螢影度 金殿人聲絕 秋夜守羅帷 孤然耿明滅’을 인용한 것으로 詩意를 그대로 잘 살리고 있다.

申在孝本 男唱 春香歌에 인용된 시의 작가로는 杜甫, 李白, 白樂天, 岑參, 韓翃, 王勃, 柳宗元, 顧愷之, 王維, 杜牧之, 歐陽修, 夷仲, 李紳, 韋莊, 蘇東坡, 元稹 등이다.

三. 批評的인 사설

주인공의 소개에서부터 비평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사또 자제 도령임이 연광은 이팔인더 얼굴은 관옥이요 풍채는 두목지라 이청련의 문장이요 왕우군의 필법이라<申在孝本 男唱>

사또子弟 道令님이 年光이 十六年에 얼굴은 潘岳이요 風采는 杜牧之요 李太白의 文章이요 王右軍의 名筆이며 외도 알고 손수 있어 風流奇男子라<申在者本 童唱>

잇셔 사또 자제 이도령이 年光은 二八이요 風采는 杜牧之라 度量은 滄海갓고 智慧 활달하고 文章은 李白이요 筆法은 王羲之라<完板本>

3본이 다 같은 표현으로서

얼굴——冠玉, 潘岳

풍채——杜牧之

文章——李白

筆法——王右軍

으로 설정되어 李도령의 미모와 재주를 과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법은 西浦의 九雲夢에도 보이고 있다.

楊少游의 才名이 크게 일어나 본 고을 太守 神童으로 朝廷에 薦擧하되 少游 母親 떠나기 어려워 나아가지 아녔더니 少游 十四五才에 이르러는 얼굴은 潘岳갓고 氣像은 青蓮갓고 文章은 燕許갓고 詩才는 鮑謝갓고 筆法은 鍾玉갓고 諸子百家와 六韜三略과 활쏘기와 칼쓰기를 精通치 아닐 것이 없으니 眞實로 여러 대 修行하는 사람이 라 世上 俗子에 比할 바가 아니라.

春香歌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다. 申孝在本 男唱 春香歌에 “春香 門前에 當到하니 城市가 멀잖은데 山林物色 좋을씨고 집 뒤에 靑山이요, 門 앞에 綠水로다 시냇가에 푸른 버들 秦彩鳳의 동네런가 牆垣을 덮은 櫻桃 桂輪月 이 살던 덴가”란 구절이 있는 것을 보면 九雲夢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인물 묘사의 방법도 九雲夢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하겠다.

춘향을 묘사함에 있어서도 같은 수법을 보이고 있다.

이 아히 심긴 거시 얼굴이 일석이요 지조가 천심이라 문장음을 침선 음식 가지 가지 다 잘하니 문장은 조덕가요 필법은 위부인 처문회의 경봉음을 천상녀의 침공 지질 모두 겸비하여서며 열녀전 너치편을 밤낮으로 공부하야 일동일정하는 형실 사부너 지찬치요<申在者本 男唱>

春香의 靄膚花容 南方에 有名하여 薛濤의 文章이요 卓文君의 音律이며 針線才質 烈行貞節 朝鮮의 第一이요<申在孝本 童唱>

莊姜의 色과 任姒의 덕형이며 李杜의 文필이며 太姒의 和順心과 二妃의 貞節을 품어스니<完板本>

이를 정리하면,

문장——曹大家(班昭), 薛濤, 李杜

필법——衛夫人(晉, 李矩의 妻)

음율——蔡文姬, 卓文君

침공——天上女

미묘——莊姜

덕행——任姒

마음——太姒

정절——二妃

와 같다. 춘향을 묘사함에 각계각층의 제일인자를 동원하여 춘향이 미색이요 재원임을 과시하고 있다.

이러한 묘사법은 다른 古代小說에서도 흔히 발견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소설에서 고정화된 기법이라 생각된다.

비평적인 사실로서 춘향이가 이도령의 편지를 보고

춘향이 회피부득 편지 바다 세여보니 아모말도 아니하고 오연 훈 귀췌이로다 녹췌가 우쳐승 흥불이 슈이정 춘향이 안마음에 지조 있는 스톨이라 이 일을 었디호고 라는 구절에서, 이도령의 ‘綠珠遇石崇 紅拂隨李靖’이라는 시구를 읽고 ‘재주있는 사람’이라고 평하였다. 이것은 綠珠와 紅拂의 故事를 인용하여 만나 보고 싶은 심정을 간결하게 묘사한 즉 ‘用事切當’이라는 評語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 앞 부분에 춘향이 인물을 가름하는 태도가 보이고 있다.

방즈를 보닌 후의 상단을 도라보며 불초한 날 까달기 마노터님 탈 잇시면 이 일

을 엮어내고 사세를 생각하면 가분적도 하나마는 갖다가 엮 붙들여 부부되자 하거
드면 너즈의 종신터사 경술이 하것나나 한나라 탁문군은 사마상여 문장풍채 본 연
후의 조초가고 당시절 흥불기는 이위풍 영웅기상 본 연후의 초자가니

卓文君은 司馬相如의 文章風采를 보고 따라 갔고 紅拂妓는 李衛公의 英雄
氣像을 보고 따라 갔음을 인용하여 人物을 평가함에 있어서 文章이 큰 기준
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詩學에서 흔히 이야기되고 있는
詩는 곧 人品을 나타낸다는 관점이라고 하겠다. 결국 짧은 시구로써 인물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詩는 곧 性情을 표현한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은 작품상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실
생활의 일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도령이 춘향의 편지를 보는 대목에서도 비슷한 양상이다.

도령임 써여 보니 당신 편지 쓴이여든 문왕이 구여삼 황숙이 방공명이라 하여시
니 도령임이 물롭치며 재너보다 미너로다 경각간의 쓴 답장이 일어케 통창한야

춘향의 ‘文王求呂尙 皇叙訪孔明’이라는 시구에 대한 평으로 ‘才女’와 ‘通
暢’이라는 평을 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연시에 對를 이루어 그 뜻을 분
명히 밝혔음을 뜻한다. 春香의 시에도 文王과 皇叙의 故事를 인용하였다는
것은 본 春香歌의 작자는 用事論에 호의적인 면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성상이 사동후사 인경전의 입시식켜 순순후교후시기를 당문장의 글 두 귀가 만년
의 격언이라 아원군왕심인 화작광명축후야 불조기라연후고 편조도망옥이 꿔진호 마
리기로 쇼흔의 외이논이 구중이 깊고 김퍼 사허가 머러시니 창성의 절고사를 옥무
의서 알 수 있나 팔도어스 보너기로 양스 문신 가리논되 너 심진 의표 보고 너 지
은글을 보니 사직의 동량이요 유학의 문장이라 나는 비북 절머시나 동휴척을 하것
기의 호남어스 특차후니

이것은 이 몽룡이 과거 급제 후 聖上이 암행어사를 내리며 한 말이다. 여
기에서 두 가지의 비평적 행위를 볼 수 있다.

聖上이 夷仲의 傷田家 ‘我願君王心 化作光明燭 不照綺羅筵 徧照逃亡屋’에
대하여 ‘萬古의 格言’ ‘逼真’이라고 評하고 있다. 이것은 확실히 帝王다운
마음 가짐이다. 그러기 때문에 ‘格言’과 ‘逼真’이라고 최대의 찬사를 한 것
이다. 聖上은 마음은 四海의 모든 백성을 두루 보살피고 싶으나 그러지 못

하는 애절한 마음을 이 몽룡에게 토로하여 자신의 愛民精神을 나타내고 있다. ‘格言’이나 ‘逼真’이라는 評語는 警句로서 깊은 감동을 주는 시에 대한 말이다. 즉 ‘格言’은 시의 깊은 뜻을 가슴에 새겨 좌우명으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이요 ‘逼真’은 ‘실물과 같다’는 뜻으로 眞實됨을 뜻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聖上이 이 몽룡의 글을 보고서 ‘社稷의 棟梁이요’라고 한 것은 앞의 예문에서 본 바와 같이 文章으로써 그 사람됨을 평가한 것이다.

四. 결 어

본론에서 주로 사설에 나타난 漢詩의 인용 양상을 살펴 보았다.

인용된 漢詩는 중국 특히 唐代의 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完板本에는 鄭知常의 大同江詩가 인용되었고 明玉의 시조와 사설시조가 인용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요즘 불려지고 있는 成又香本과 金素姬本 춘향가에는 金黃元의 ‘長城一面溶溶水 大野東頭點點山’이라는 시가 인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본래 唐詩만 인용되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시로 변모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곧 作品의 내용과 알맞고 좋은 시라면 인용될 수 있다는 판소리의 폭넓은 포용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아진다.

九雲夢에서는 漢詩가 小說의 전개에서 motive의 구실을 하고 있으나¹⁾ 판소리 사설에 있어서는 意를 빌어 묘사함에 원용되는 또 다른 시의 적능을 볼 수 있었다.

판소리 사설에서 구구절절이 漢詩를 인용한 까닭은 판소리 사설 작자, 또는 판소리 唱者의 才談을 위한 街學의 태도이며, 그럼으로써 판소리의 향유층인 지식인들의 구미를 돋우고 나아가 작품의 분위기를 시적 정감의 세계로 이끌어가려고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판소리 사설에 한시가 인용된 것은 詩作法으로서의 用事가 小說作法에 활용되었다고 본다.

春香歌 이외의 판소리 사설에서 이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판소리의 특징은 더욱 드러나리라 본다.

1) 拙稿: 九雲夢에 나타난 批評意識, 국어국문학 72. 73합병호, 1976.